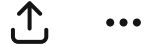


TP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성인

# JWY 인 더 트랩 郑友荣陷入了陷阱

원낫



differ 不同

2022.01.25 · 조회 6.4천 · 阅读量 6.4 千 · 좋아요 281 · 댓글 23

"야이....미친 놈아." "喂.....你这个疯子。"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꼴에 우영이 제 얼굴을 틀어막았다. 현관에 정지한 우영의 뒤로 한 박자 늦게 철컥 문이 닫

♥ 280    💬 23    📌

<   >   감은 보다 선명해

졌다. 불시에 마주한 영웅이 영세의 인사가 눈앞에 전개되던 영세를 본었다. 애초에 구석에 박힌 점 하나까지 똑같은 몸뚱이니 상상을 덧붙일 필요도 없었다. 그게 좇같다면 제일 좇같은 부분이었다. 재가 나인 것. 또 내가 재인 것.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꼴에 우영이 제 얼굴을 틀어막았다. 현관에 정지한 우영의 뒤로 한 박자 늦게 철컥 문이 닫혔다. 바람과 함께 집안으로 밀려들던 외부 소음이 소거되자 현실감은 보다 선명해졌다. 불시에 마주한 쌍둥이 형제의 전라가 눈꺼풀 안에서도 형체를 굳혔다. 애초에 구석에 박힌 점 하나까지 똑같은 몸뚱이니 상상을 덧붙일 필요도 없었다. 그게 좇같다면 제일 좇같은 부분이었다. 재가 나인 것. 또 내가재인 것. 우영忍不住捂住了自己的脸, 无法直视眼前的情景。随着他停在玄关处, 门在他身后迟了一拍才咔哒一声关上。随着风一起涌入屋内的外部噪音消失后, 现实感变得更加清晰。突然面对的双胞胎兄弟的裸体在他的眼皮下定格。原本连角落里的一个点都一模一样的身体, 根本不需要再去想象。如果说这很糟糕, 那最糟糕的部分就是: 他是我, 我也是他。

식탁의 빼걱임은 멋있지만 갈무리 못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실을 부유했다. 눈이 아니라 귀를 막았어야 했나 보다. 우영은 슬며시 가린 손을 치웠다. 시야의 모든 것들이 어느 국산 싸구려 포르노의 캡처 장면 같았다. 골 때리는 건 배경이 내 집이라는 점이고.

餐桌的吱嘎声停了下来, 但两个人的喘息声仍在客厅里回荡。看来应该捂住耳朵而不是眼睛。郑友荣悄悄地移开了遮住的手。视野中的一切都像某个国产廉价色情片的截图。最让人无语的是背景竟然是我家。

멀쩡한 지 방 침대 놔두고 태영은 식탁에서 그 짓을 하는 중이었다. 몇 시간 전 엄마가 보내준 국과 반찬에 햇반을 데워 나란히 아침밥을 먹었던 자리였다. 어쩐지 최근 들어 테이블 다리 연결 쇠가 여영 헐겁다 했더니. 우영은 불쑥 비위가 상한다.

明明有好好的房间和床, 泰英却在餐桌上做那种事。几小时前, 他们还在这里吃着妈妈送来的汤和小菜, 配着微波炉加热的米饭, 安静地吃着早餐。最近不知怎么回事, 桌子腿的连接处总是松松垮垮的。友荣突然感到一阵恶心。

"뭐야. 왜 벌써 와?" "什么呀。怎么这么早就来了?"

예의도 수치도 모르는 태영은 그 와중에 우영을 탕했다. 휴강에 공강이 겹치며 시간이 뒀고, 과방에서 노닥거리느니 편하게 눈이나 붙여야겠단 생각으로 귀가한 우영은 잘못이 없다. 굳이 꼽자면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애초에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보고할 만큼 우애 좋은 사이도 아니거

니와 나 없는 내 자취방에서 내 형제가 남자 불러다 섹스하는 걸 예상하지 못한 게 과연 우영의 부주의인가 싶다.

无礼又不知羞耻的太英在这过程中责怪了友荣。因为休课和空闲时间重叠，友荣觉得与其在社团活动室闲逛，不如回家舒舒服服地睡一觉，这并没有错。如果非要挑毛病的话，那就是他没有提前联系。但他们本来就不是那种事无巨细都要汇报的亲密关系，再说了，谁能想到在自己不在的自习室里，自己的兄弟会叫男人来做那种事呢？这难道是友荣的疏忽吗？

사실 우영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태영과 교접해 있는 상대의 성별이었다. 태영의 여성 편력은 누구보다 우영이 잘 알았다. 타고난 게 특출나다 보니 우영도 암전히 살았다고 할 수 없으나 태영에 비하면 순정파로 포장되는 수준이었다. 오죽하면 고등학생 시절 별명이 남자 걸레였다. 그리고 소문난 걸레 새끼랑 똑같이 생긴 죄로 우영이 곤란한 일에 말려든 것 역시 하루 이들의 역사가 아니었다.

事实上，友荣真正受到冲击的是泰荣的交往对象的性别。友荣比任何人都清楚泰荣的女性关系。由于天生条件出众，友荣也不能说是安分守己，但相比之下，他简直可以被包装成纯情派。高中时期，泰荣的绰号是“男版拖把”，可见一斑。而因为长得和这个臭名昭著的“拖把”一模一样，友荣被卷入麻烦事也不是一天两天的事了。

그랬던 정태영이 웬 남자 뒷구멍 쑺시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감히 상상해 본 적 없었다. 물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那样的郑泰英竟然会看到一个男人在后面捅另一个男人的场景。真是从来没想过。当然也不想去想。

"내가 내 집 오면서 연락을 왜 해."

"我回自己家为什么要联系你。"

혼란스러운 우영과 달리 태영은 덤덤했다. 형제에게 섹스를 들킨 일이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였다. 느릿느릿 뒷정리를 하는 태영을 보며 우영은 콘돔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면 안전제일이라고.

和混乱的友荣不同，泰荣显得很淡定。他的态度仿佛被兄弟撞见做爱根本不是什么大不了的事。看着泰荣慢吞吞地收拾残局，友荣检查了一下避孕套是否戴好了。反正事情已经发生了，安全第一。

태영이 바닥에 떨어진 바지를 대강 주워 입는 동안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 있던 남자도 상체를 일으켰다. 누워있을 땐 몰랐는데 몸이 꽤 좋았다. 땀 났던 어깨에서부터 허리로 떨어지는 선이 여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둥근 구석 하나 없이 투박하고 어딜 만져도 딱딱하기만 할 것 같아 보였다. 은연중에 여자마냥 작고 가느다란 체형일 거라 생각했던 남자는 보통 남자들 사이에서도 드물게 각 잡힌 몸매를 가진 편이었다. 주무를 가슴은 없고 대신 잘 짜여진 복근이 선명했다. 잘은 몰라도 박으면 박았지 남자 밑에 깔려서 앙앙거릴 타입은 아니지 않나.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몰래 품평하게 되는 것이다.

泰英在地上随便捡起裤子穿上的时候，斜靠在餐桌上的男人也直起了上半身。躺着的时候看不出来，但他的身材相当好。从宽阔的肩膀到腰部的线条与女人的截然不同。没有一处是圆润的，显得粗犷，摸起来似乎也都是硬邦邦的。原本以为他会像女人一样有着小巧纤细的身材，但实际上他在普通男人中也算是身材匀称的。没有丰满的胸肌，取而代之的是清晰的腹肌。虽然不太清楚，但他看起来不像是会被压在男人下面哼哼唧唧的类型。虽然知道这样不礼貌，但还是忍不住偷偷地评价了一番。

"영아." "友荣."

아마도 태영을 부르는 거겠지만 자연스레 우영의 시선도 모아졌다. 우영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 태영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也许是在叫泰英，但自然地，友荣的视线也被吸引了过去。看起来他并不惊讶友荣的出现，似乎知道泰英有一个双胞胎的事实。

남자는 우영이 지켜보고 있는 걸 알면서 유유히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바닥을 딛는 발등에서부터 역으로 시선이 올라갔다. 종아리에서 허벅지를 거쳐 골반, 허리까지. 상체에서 느낀 부피감이 무색하

게 가슴 아래 양감이 형편없었다. 꼭 전혀 다른 두 개의 몸을 이어붙여 놓은 것 마냥. 하체를 보고 나니 어깨와 등에 붙인 근육이 타고난 것이 아닌, 철저히 노력으로 일군 결과란 걸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男人知道友荣在注视着他，悠然地迈开了步伐。这次，视线从脚背开始逆向上移。经过小腿、大腿、臀部，直到腰部。上半身的体积感与胸部以下的贫瘠形成了鲜明对比。就像是把完全不同的两具身体拼接在一起一样。看完下半身后，不难猜测出肩膀和背部的肌肉并非天生，而是通过彻底的努力锻炼出来的结果。

"나 팬티가 다 젖어서. 니 거 좀 빌릴게."

"我内裤全湿了。借你一条吧。"

민망한 소릴 아무렇지 않게 하며 남자가 태영의 방에서 속옷을 꺼내 입었다. 고민하지도 않고 한번에 셔랍칸을 여는 것이 제 집처럼 능숙했다. 심란해져 얼굴을 쓸어내리는 우영을 뒤로 한 채 태영은 그새 남자를 따라 들어가 갖은 애교를 떨어댔다. 저리 가라는 경고에도 애새끼처럼 등 뒤에 찰싹 붙어 옷 입는 걸 휘방 놓고 있었다. 사나 사나양. 부르는 이름이 특이했다.

尴尬的声音毫不在意地响起，男人在泰荣的房间里拿出内衣穿上。毫不犹豫地一次性打开抽屉，就像在自己家一样熟练。泰荣跟着男人走进去，撒娇卖萌，而忧心忡忡的友荣则在后面抚摸着脸。尽管泰荣警告他走开，但他像个小孩子一样紧紧贴在男人背后，妨碍他穿衣服。萨那，萨那昂。这个名字很特别。

"그럼 우리 언제 또 만나?"

"那我们什么时候再见面?"

휴대폰과 소지품을 챙기던 남자가 우영의 눈치를 슬쩍 본다. 태영은 아까부터 우영을 공기 취급하는 중이었다. 떠날 준비를 마친 남자가 현관에 선 우영에게로 가까워졌다. 한쪽으로 비켜 공간을 내

어준 우영의 앞에서 남자가 허리를 숙여 스니커즈를 꺼신했다. 슬그머니 몸을 일으킨 남자와 정면으로 대치한 소감은. 눈높이가 달라 짜증 난다는 거.

手机和随身物品收拾好的男人偷偷看了友荣一眼。太英从刚才开始就把友荣当空气。准备离开男人走近站在玄关的友荣。友荣侧身让出空间，男人在他面前弯腰穿上运动鞋。悄悄站起身的男人与友荣正面对峙的感受是。因为视线高度不同而感到恼火。

심지어 키까지 크다니. 정말 귀여운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다. 가까이서 본 남자의 이목구비 역시 예쁘다는 말보단 남자답다는 수식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우영과 태영이 곡선이라면 남자를 이루는 선들은 대체로 짝짝 뺨은 직선들이었다. 그동안 사귀어온 여자와 닮은 점을 찾으려면 눈이 두 개, 코와 입이 각각 하나씩이라는 것 정도. 별안간 게이가 된 태영의 취향을, 우영은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甚至连个子都很高。真的没有一丝可爱的地方。近距离看这个男人的五官，也更适合用“男人味”来形容，而不是“漂亮”。如果说友荣和太英是曲线的话，那么这个男人的线条大多是笔直的直线。要说和他之前交往的女生有什么相似之处，那大概就是都有两只眼睛，一个鼻子和一张嘴。对于突然变成同性恋的太英，友荣完全不知道该如何接受。

"뭐냐." "什么。"

절절한 배웅을 끝낸 태영이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평소의 무심한 얼굴로 낮을 갈아 끼웠다. 묻는 우영을 뺀하니 지나친 태영이 거실 바닥에 떨어진 콘돔 껍질과 러브젤 튜브를 주워 모으며 대답했다. 우영은 평소처럼 가방을 식탁 상판에 던지려다 퍼뜩 정신을 차렸다. 소파고 의자고 죄다 찢찢해졌다.

送别完泰英后，玄关门刚一关上，他立刻换上了平时那副冷漠的表情。无视了友荣的询问，泰英径直走过客厅，捡起地上的安全套包装和润滑剂管子。友荣本想像平时一样把包扔在餐桌上，但突然清醒过来。沙发和椅子都变得让人不舒服了。

"재? 최산." "他？崔伞。"

"누가 이름 궁금하대?" "谁说对名字好奇?"

그러나 덕분에 의문스러운 발음의 실마리가 풀린다. 최산. 눈매와 닮은 뽀족한 이름이 혀 아래에서 소리 없이 맴돌았다.

然而，这也解开了那令人疑惑的发音之谜。崔伞。这个和他眼神相似的尖锐名字在舌尖下无声地回荡。

"다 봐놓고 뭘 물어." "都看完了还问什么。"

"보고도 안 믿기니까 묻는 거잖아."

"因为看了也不相信，所以才问的。"

우영은 뒤늦게 머리가 지끈거려 이마를 짚었다. 정태영 저 또라이가 저러다 갑자기 커밍아웃하겠다고 설칠까 봐. 그간 태영이 착실히 적립한 불효 마일리지를 계산하며 우영의 한숨이 깊어졌다.

郑友荣迟迟才感到头痛，捂住了额头。担心那个疯子郑泰英会突然宣布出柜。想着泰英这些年积累的逆子积分，友荣深深叹了口气。

"개랑 사겨?" "你在和他交往吗?"

"뭐, 누구. 산이랑?" "什么，谁。和伞?"

지극히 정상적인 추론에도 뭐가 웃긴지 태영이 푸흠 실소를 터뜨렸다. 우영은 불쾌한 기분을 숨기지 않고 미간을 잔뜩 모았다.

在极其正常的推论中，不知道什么让泰荣噗嗤一声笑了出来。友荣毫不掩饰自己的不快，紧皱着眉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노는 거야. 우리 존나 친군데."

"不是那样的，我们只是玩玩而已。我们是非常亲密的朋友。"

내가 미쳤다고 최산이랑 사귀냐. 태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질색하며 어깨를 털었다. 못할 소릴 한 것도 아닌데 질문한 우영만 면구한 입장이 된다.

我疯了吗，才会和崔伞交往。泰英一脸不可思议地抖了抖肩膀。明明没说什么过分的话，提问的友荣反而觉得尴尬。

적어도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설칠 걱정은 덜었으니 다행인가 싶다가도. 어딘가 내키지 않는 기분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장점을 착즙해 보자면 섹스만을 목적으로 맺는 관계보다 뒤탈은 적을 것 같았다. 밥 먹고 술 마시고 킁킁대다가 꼴리면 박고 싸면 되니까. 남들 모여서 배그할 때 배그하면서 섹스도 같이 할 수 있는 만능 오나홀이 생기는 거였다. 일석이조 일타이피. 프렌즈 워드 존나 베네피트.

至少不用担心他会嚷嚷着要和男人结婚了，虽然这样想是有点安慰，但还是无法摆脱那种不舒服的感觉。要说优点的话，比起只为了性而建立的关系，这样的关系似乎更少后顾之忧。吃饭喝酒嘻嘻哈哈地玩闹，兴致来了就做爱，完事了就结束。就像别人聚在一起玩游戏时，我们也可以一边玩游戏一边做爱，简直是万能的自慰器。一石二鸟，一举两得。朋友加上他妈的好处。

"못 믿겠음 물어봐. 최산도 똑같이 대답할걸."

"不信的话问问看。崔伞也会一样回答的。"

태영이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으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가끔은 엄마도 헛갈릴 만큼 똑답게 태어난 탓에 둘 중 하나는 염색을 하거나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 식의 차이점을 두기로 합의 봤다. 거의 사개월을 기른 태영의 머리는 이제 짧은 단발에 이룰만큼 자라 있었다. 잔머리 없이 고무줄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품이 꽤 능숙했다.



泰英一边重新绑起凌乱的头发，一边漫不经心地说道。由于两人长得太像，有时连妈妈也会搞混，所以他们决定其中一个要染发或者改变发型，以此来区分。泰英的头发已经留了将近四个月，现在已经长到短发的长度了。他熟练地用橡皮筋整理着头发，没有一丝碎发。

우영은 태영을 상대하던 산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건 '존나 친구'의 태도가 맞았다. 물론 둘이 진짜 친구건 가짜 친구건 우영이 상관할 바도 아니었다.

우영想起了崔伞面对泰英时的表情。那确实是“他妈的朋友”的态度。当然，不管他们是真朋友还是假朋友，都与郑友荣无关。

"뭘 물어. 나랑은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问什么呢。反正我们也不会再见面了。"

우영은 일축하고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다. 다음엔 옷 입고 만나면 되잖아! 달히는 문틈으로 태영의 고함이 날아들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입 아프게 설명하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友荣一甩头，转身朝自己的房间走去。下次见面时穿好衣服不就行了吗！关门的缝隙中传来了泰荣的喊声。虽然这并不是问题的核心，但他不想浪费时间费口舌解释。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우영과 최산의 일생을 설명하는 문법은 모든 구간에서 어긋날 것이다. 반 정도 안 되는 좁은 현관에서 눈빛을 교환한 그 찰나에 우영은 깨달았다. 아, 애랑은 절대 엮이면 안 되겠구나. 산의 더러운 눈매가 우영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십 년간 쌓인 빅데이터에 의하면 대체로 저런 눈을 가진 놈과는 상성이 안 맞았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郑友荣和崔伞的一生注定会在所有方面都不合拍。在不到半平米的狭窄玄关里交换眼神的那一瞬间，友荣就明白了。啊，绝对不能和这家伙扯上关系。伞那肮脏的眼神更加坚定了友荣的判断。根据二十年来积累的大数据，通常和这种眼神的人合不来。

산을 떠올리면 태영과의 섹스 장면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산과 뒤엉킨 그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이 잔상이 길었다. 정태영이면서 동시에 정우영인. 쌍둥이라고 해서 감각을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우영은 부르르 머리를 털며 몸서리를 쳤다.

想到崔伞，和太英的性爱场面自然地在脑海中重现。崔伞和他纠缠在一起的那张脸，就像看镜子一样一模一样，残影久久不散。既是郑太英，又是郑友荣。虽然是双胞胎，并不意味着他们共享感官，友荣颤抖着摇了摇头，打了个寒战。

진심으로 뇌를 꺼내 씻고 싶은 심정이었다.

真心想把脑子拿出来洗一洗。

정우영 인 더 트랩 郑友荣陷入陷阱

---

여기부터 유료 분량입니다. 这里开始是收费内容。

1,000P(결제 완료) 1,000P (支付完成)

You must not reproduce, distribute, republish, sell the content without the creator's permission.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legal prosecution.

未经创作者许可，您不得复制、分发、重新发布或出售内容。否则可能会导致法律起诉。

### 낮은 비계 썰 모음 C

※소재주의 약간의 모럴리스※ 구매하신 분들은 이 글이 ...  
※素材注意：有些许道德缺失※ 购买的朋友们，如果这篇...

2021.08.07 1,000P 1,000 点

### 섹텐네버라이 B

웡낫 | <지난 편 하이라이트 클립> 그럼 이제... 다음 주...  
2022.01.26 1,000P 1,000 点

### [BL] 악우 1화 [BL] 恶友 第1话

아래 결제 상자는 해당 회차의 소장을 위한 것으로 결제 ...  
以下结算框是用于购买该章节的，结算框底部没有其他...  
2일 전 两天前 600P

### K리그1 16R 上 미리보기

1. 울산 (2위) VS 전북 (10위)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두 ...  
1. 蔚山 (第2位) VS 全北 (第10位) "急需扭转局势的两队...  
7일 전 7天前

🔄 추천 콘텐츠 더보기

## 23개의 댓글 23 条评论

작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남기기

📌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가 고정함 决定不再爱我

differ 不同 크리에이터 创造者

2년 전

CS 인 더 트랩으로 이어집니다

💬 0 🍷 46

박 구매

1개월 전

제발 제발 ...다음 다음이 너무 간절해요

拜托拜托...下一个下一个太迫切了

0 0

...

강강 구매

3개월 전

엄마 나 아직 여기 있어

妈妈，我还在这里

0 2

...

Unknown 请提供您希望翻译的文本内容

3개월 전

죽기전에(내가)다음편나어ㅏㄴㅎ좋겠다... 在我死之前，希望能看到下一集.....

0 0

...

김군 구매

3개월 전

돌아와주세요 제발...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请回来吧，拜托了...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0 0

...

살구 구매

6개월 전

진짜 최고예요 선생님..저 기다릴게요 돌아와주세요

真的太棒了，老师..我会等你的，请回来吧

0 0

...

미년 구매

8개월 전

cs 인 더 트랩 .....

0 0

...

구매

1년 전

CS 인 더 트랩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 ESC로 새로고침만 주야장천하는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S 在陷阱里让我无比想念，过上了日夜不停按 ESC 刷新页面的生活

0 0

...

공Y 구매

1년 전

또 보러 왔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사와요.. 잘 지내시죠? 념 그립습니다...  
又来看你了，依然在等待着你.. 你过得好吗？非常想念你...

0 0

...

호대 구매

1년 전

저여기서영원히기다리는망부석이되... 我会在这里永远等待，变成一块望夫石...

0 0

...

ㅁㅁ 구매

1년 전

저 아직도 기다려요 cs인더트랩,,,,, 我还在等着看《奶酪陷阱》.....

0 0

...

공Y 구매

2년 전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妈妈，我会等你的，我爱你

0 0

...

우리엄마오천명 我们妈妈五千名

2년 전

엄마 나 또왔어요..... 다음편 평생 기다릴게요.... 존맛도리  
妈妈，我又来了.....下一篇我会一直等的.....真好吃

0 1

...

ki

2년 전

CS 인 더 트랩으로 이어진다는 댓글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디퍼님 글과 함께 평생 윈낫할게  
요... 당신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一看到评论说会接着《奶酪陷阱》继续，我就尖叫了.....我会一辈子追随迪弗的文章.....我爱你的存在

0 1

...

너에게미침

2년 전

디퍼니뮤 기다렸어요

迪퍼尼뮤 等你很久了

0 1

...

젼젼 후원 3,000P

2년 전

디퍼님... 야심한 시각에 업로드가 되어서 밤잠을 설치고 대낮이 되어서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쌍둥이 설정을.....

迪퍼大人.....在深夜上传，导致我彻夜难眠，直到白天才恢复精神.....怎么会有这种.....极其恶毒的双胞胎设定.....

언젠가 디퍼님이 쓰셨던 트윗 기억나네요. 데자부 우원이랑 인셉션 사니 만나게 하기... 그 사이에 불노리야 영이 넣기... 이거 다 빅픽쳐였던 거죠? 힙 몰라잉

记得有一次迪弗发的推文。让《Deja Vu》的友荣和《Inception》的伞见面... 在他们之间加入《불놀이야》的友荣... 这都是大计划，对吧？哼，我不知道

표면적으로 사냥꾼과 먹잇감이 명백한 거 같아 보여도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저를 더 울게 만듭니다. 사실 가장 울게 만드는 건 디퍼님의 'CS 인 더 트랩'으로 이러진다는 댓글입니다.. 벌써 죽겠어요 강...

表面上看起来像是猎人和猎物的关系很明显，但深入了解后却发现关系并不明朗，这让我更加难过。其实最让我难过的是迪帕大人的《CS in the Trap》中的评论.....我已经快要崩溃了，真的.....

디퍼님이랑 같이 영нат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能和迪珀一起玩，我真的太幸福了。





0 1

...

해행

2년 전

미쳤다... 疯了...

0 1

...

서파 후원 3,000P

2년 전

하... 심장이 너무 나대서 중간중간 폰 집어던지고 온갖 난리를 치며 읽었더니 벌써 새벽 4시 반인데  
요... 포타 한 편 읽다가 두 시간 반이 흘렀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만 그게 디퍼님 글이고 쌍  
둥이 정우영 나온다 덧붙이면 '세 시간 안 걸린 게 용하다' 하겠죠? 네네...

하...心脏跳得太快了, 中间还把手机扔了好几次, 折腾了半天才读完, 结果已经凌晨四点半了...  
谁会相信我读了一篇文章就花了两个半小时呢? 但如果我说这是迪弗的文章, 而且还有双胞胎  
郑友荣, 大家肯定会说“没花三个小时已经不错了”吧? 是啊是啊...

너무 광분해서 계정 갈아끼우는 것도 잊은 김에 저 샤이디퍼러버 그만두겠습니다. 여태까진 뭔가 수  
줍은 맘이 더 컸는데요... 저 그냥 존나디퍼러버하겠습니다. 좋아서 스트레스 받는 감각을 아시나요,  
열 받으면 눈물부터 나는 사람이라 강 오열을 하고 있다고요...

太过激动以至于忘记切换账号的金弘中决定不再做那个羞涩的粉丝了。到目前为止, 羞涩的心  
情一直占据上风.....但现在他决定做一个狂热的粉丝。你知道那种因为喜欢而感到压力的感觉  
吗? 他是那种一生气就会先流泪的人, 所以现在他正在嚎啕大哭.....

스크롤 두 번 내리고 쌍둥이 설정 확인하자마자 나 망했다 오늘 밤 좇됐다 외치고... 중반부에서 “너  
랑 친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에서 진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마지막에는 그  
냥... 오늘 밤 좇된 가치가 있었다 난 후회 없다 결론을 내렸네요...

滚动两次屏幕, 确认是双胞胎设定后, 我就知道完蛋了, 今晚彻底完蛋了... 中间部分看到“我想  
和你做朋友, 但不知道该怎么做”时, 我真的像弹簧一样跳了起来... 最后就只是... 今晚的完蛋是  
值得的, 我不后悔, 得出了这个结论...

삼각형에 미친 인간이라 또 홀로 JTY 인 더 트랩까지 상상하면서 원래의 기상 시각까지 남은 시간  
들을 조져보려합니다... 저는 진짜 이 글 속 사니가 너무너무너무 너무예요... (알맞은 형용사 및 동  
사 못 찾음) 심장은 너무 뛰지만 행복해요... 두고 두고 읽을래요 (˘ ˘)

三角形狂人又独自一人想象着 JTY in the trap, 打算在原定的起床时间前把剩下的时间都消磨掉...我真的觉得这篇文章里的崔伞太太太可爱了..... (找不到合适的形容词和动词) 心跳得很快但很幸福.....我要反复读这篇文章 (ゝ▽ゝ)

도사

2년 전

제발.

심장이 목에서 뛰어요... 쌍둥이 정우영?... 정우영이 두 명?... 진짜 너무 좋아서 토하면서 읽었어요  
心脏都跳到嗓子眼了... 双胞胎郑友荣?... 两个郑友荣?... 真的太喜欢了, 看得我都要吐了  
온몸을 발발 떨어가면서 간신히 끝까지 읽었더니 냅다 다음편 예고.. 저 정말 뒤질 거 같아요..  
全身发抖地勉强读完了, 结果直接预告了下一篇.....我真的快要死了.....

0 1

...

우리엄마오천명 我们妈妈五千名

2년 전

엄마.....

妈妈.....

0 1

...

Kyd

2년 전

디퍼님 정말 극악무도하시네요 새벽1시에 이런글을 올리신다? 깨어있는 뽕냥러들 아무도 잠 못들게 만들겠다는 뜻 아닌가요 게다가 쌍둥이 정우영이라니 진정 미치셨나요????지금 너무 흥분돼서 에스프레소 열잔 때려마신 것처럼 심장이 뛰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하.....이마 치면서 내려왔더니 다음편 예고까지 당신은 방금 사람 하나 죽일뻔 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내 목숨은 디퍼님 것입니다 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

迪你真是太残忍了, 竟然在凌晨1点发这种文章?你是想让所有醒着的粉丝都无法入睡吗?更何况还是双胞胎郑友荣, 你真的疯了吗???我现在太激动了, 心跳得像喝了十杯浓缩咖啡一样, 你打算怎么负责???哈.....我拍着额头下拉页面, 结果看到下一篇预告, 你要记住你刚才差点杀了一个人.从现在开始, 我的命就是你的了.爱你爱你爱你.

0 1

...

.구매

2년 전

엄마..... 스크롤 내릴때마다 아까워서 눈물 났어요 사랑해요 너무 재밌어요.....



妈妈..... 每次往下滚动时都觉得可惜，眼泪都要掉下来了。我爱你，真的太有趣了.....

💬 0    ❤️ 1    

...

와이낏

2년 전

죽고싶다..디퍼님 사랑해요 死了算了..迪弗我爱你

디퍼님의 글이 나를 살게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다음편도 있다니 여한이 없습니다..죽을순없습니다  
다음편봐야서 살아야합니다..

迪퍼님의 글让我活了下来，我很幸福。还有下一篇，我没有遗憾了。我不能死，我必须活着看  
下一篇。

💬 0    ❤️ 2    

...

포인트 무료 충전

지금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